

오전9시,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10장(전능왕 오셔서)	다 같이
※ 교독문 15(시편27편)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183장(반들에 마른 풀같이)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차소라집사 2부 강항구장로	
응답송	찬양대
금주의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의기도		
*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옵소서.		
*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출애굽기 17:8-16	이종봉권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중보기도를 하라 ”	
기도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송 363장(내가 깊은 곳에서)	다 같이
봉헌 (예배사역팀)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다 같이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금)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원 / 김순님권사	본문 / 왕하 2:19-22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마태 25:1-13	출애굽기강해	
말씀 / 최세열목사	“고치시는 하나님”	말씀 / 최세열목사	“열 처녀의 비유”	금요기도회	
축도 / 최세열목사		주기도문 / 다같이.		금요일 오후8시 개인기도, 합성기도 중보기도 / 소예배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김운수	다음주 기도	1부 김경희집사	
	현금위원	5월 박상규 정선례 박현순 정재영	다음주 성경봉독	2부 박홍만장로	
		6월 김기희 주종임 허웅 김귀래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A	다음주 에스더B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애자권사
헌신찬양	금주	예배사역팀	다음주	중보기도사역팀	

중보기도를 하라 / 출애굽기 17:8-16

중보기도라는 말은 ‘두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벌이는 전쟁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 모세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 조치는 여호수아라는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현실의 불만 끄려고 애를 쓰다가 다른 더 큰 위기를 초래하거나, 현실을 떠나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산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으로 여호수아와 군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가 아니라 여전히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2.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갈 때 혼자가지 않았습니니다. 그에게는 아론과 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비록 잠들어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가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의 팔이 내려오고 있고, 백성들은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손을 붙잡아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하여 중보기도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의 기도와 더불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의 긴 신앙 여정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1등이 되고 2등이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으로 인생이 다 결정 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영원한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이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현실은 순간이며 과정입니다.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여호와 닛시!’(15절). 여호와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서서 깊이 기도하는 일, 서로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자가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앙주제로 나누는 구역예배(주제6:예배와 기도)

5/22 제1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창세기 4장 1-7절)

말씀살피기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묵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피의 제물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피 없는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릴 당시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처럼 제사와 제물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니다.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와 제물의 형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과 준비, 정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보십니다.

제물이 스스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나 양이 스스로 나를 잡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수 없으며, 곡식이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바치는 사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4-5절) 하며 사람과 제물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물, 곧 예배를 받으시는 문제는 전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평소의 생활을 보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부모의 품을 떠나 제각기 농사와 목축의 일을 하기까지 그들의 생활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7절)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으나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오기까지 선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사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릴 때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 13:16)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적용

1. 평소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2.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전교인 성경읽기에 함께 참여합니다.
2. 5월은 구역예배가 없는 달입니다. 금요기도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일 찬양예배시간에는 구역별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구역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노회소식 :
 - 성림교회 담임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철문보다 강한 거미줄

로마 10대 박해 시대에<노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산 속 동굴 안에 숨었습니다. 관원들은 그를 뒤 쫓아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굴속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굴 앞에 당도한 수색대원들이 왔다 갔다만 하고 굴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그들이 다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가 숨어 있는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거미 몇 마리가 쏜살같이 그 굴 입구에 거미줄을 쳤던 것입니다. 수색대원들은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이 굴속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돌 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로 채워진 기도의 잔

미국 보스턴에는 유명한 조각가 달린(Cyrus Dalin)의 '개척자의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어머니를 조각한 작품이다. 그 조각상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 개척해 나갈 새 땅의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특히 그 눈동자는 소망을 가득 담은 듯 세밀히 묘사되고 있다.

달린은 자기 작품의 제막식에 어머니를 초대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품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화답하셨다. "그래, 잘 만들었어.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평생 동안 가지고 온 생각과 너를 향한 나의 기도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구나.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한 선물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다면 그 선물의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으로 눈물로 채워진 기도의 잔은 어떨까. 그러면 자녀들의 삶에서 그 기도 응답을 지켜보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 되지 않을까.

망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이현옥 지국남 이루다 김숙희 지대근 김홍영 이드림 이용훈 김영숙 정선례 김상례 최세열 조성순 김애자 오복실 박지영 김선주 원혜경 박기환 한옥자 허 웅 김순임 김연학 김장숙 방옥남 서영자 서순자 선우명환 장영분
- 감사헌금 : 지국남 이현옥 김선자 서영자 이종춘 심문자 심복례 최승만 김애자 김선주 원혜경 최세열 조성순 윤종원 김병진 김귀례 김지환 김동현 양희임 박지아 김혜경 조은미 무명2 (생일) 지효리 이은구 이루다 심재수 강옥례 (일천번제) 김동현 한재현 한진현
- 건축헌금 : 최세열 조성순 박기환 한옥자 윤종원 김애자 박주한 허 웅 김순남 김옥길 여순애 김법진 김귀례 김근중 주종임
- 비전씨앗 : 김태라 황은상 김하윤 배영인 김을건 노장호 노현호 김예진 김승호 박주한 한상호 차소라 한재현 한진현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 도 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6-21호 2016.5.22.

성령강림 둘째 주일

성령의 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섭리하사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찬양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의 끝없는 욕심이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깨뜨리고 말았음을 회개합니다.

푸르렀던 하늘은 희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맑았던 물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농어민의 수고를 거름 삼으며
풍성한 결실을 내던 땅과 바다는
마구잡이 개발의 생채기에 신음하며
사라지고 마는 것을 마주합니다.

이제 다시 삶의 터전을 되살리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즐거이 노래하듯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모든 곳마다,
도시나 농촌이나 어촌이든지,
한반도 끝자락 한라에서 백두까지든지,
생명의 기운으로 넘실거리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가족 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된 박지아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원천성일아파트, 청년)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종만 강항구
교역담당:이광주목사, 강은순전도사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 최지현